

공존의 이유를 묻는 마이크로오가니즘 페이스(microorganism Faces)

미술평론가 유현주

생명이란 무엇인가? 본래 모든 생명체는 공통의 본질을 가진 것이 아닐까? 삶과 죽음은 서로 순환하는 생명이 아닐까?

곰팡이 핀 얼굴들, 생명의 운동

미생물이 발효한 그로테스크한 곰팡이 핀 얼굴, 바로 박정선 작가의 <미생물 얼굴>로부터 떠오르는 질문들이다. 아크릴 상자 안에 든 얼굴들은 목 만드는 재료인 한천에 영양성분과 물을 넣어 고체화한 형상이다. 작가 자신의 얼굴과 마릴린 먼로의 얼굴 그리고 한 여배우의 얼굴을 본 뜬 이 얼굴들은 주검처럼 고요하지만, 실제로는 왕성한 생명활동이 그 얼굴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대장균에 형광단백질을 이식해서 배양하여 만든 형광대장균과 발광 박테리아를 바른 얼굴표면과 공기 중에 퍼져있는 곰팡이 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학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화학적 환경으로 인해 얼굴들은 점차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부패한 시신처럼 변형되어 간다. 그 얼굴들은 점차 또 다른 생명체 혹은 미생물이 표지가 된 얼굴들로 전환되는데, 붉거나 푸르거나 노란 형광 빛으로 전환된 그 얼굴들은 다른 생명체의 점유를 알리는 신호등처럼 빛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이 다른 생명체로 전이되어가는 것이라기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하고 서로 관계하는가, 즉 공생하는가를 목격한다. 물론 거기엔 “생명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이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존재하는 것, 생명, 삶과 죽음,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경계에 대한 작가의 끝없는 관심과 문제의식이 미생물 얼굴들의 표면 아래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호흡, 공생의 춤

생명은 박정선 작가의 작업에서 움직이는 것들,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호흡 운동으로 나타난다. 마치 검버섯처럼 얼굴에서 피어나는 곰팡이들, 미생물이 뿜어내는 호흡과 분비물 때문에 모여드는 초파리들, 시신처럼 썩어가는 그 얼굴들에서 오히려 역동적인 생명의 운동이 감지되는 것이다. 즉 식물과 동물이 분화되고 각자의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생명충동의 작용이 미생물 얼굴들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얼굴에서 벌어지는 이 생명현상을 확대시켜보면, “지구의 생명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리학적 몸과도 같다”는 생물학자 마굴리스의 언급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마굴리스에 따르면 “생물은 자기 완결적이고 자율적인 개체라기보다 오히려 다른 생물과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은 지구의 다른 곳에서 호흡하는 생물들과 연결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밤에 증가하면 낮에는 감소하는 식으로 지구생물권의 호흡은 순환하며, 일 년의 호흡은 계절의 변화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박정선의 마이크로오가니즘 페이스 또한 그 얼굴에서 생성된 미생물이 호흡에 의해 또 다른 생명들과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생명의 리듬이다. 한천에서 박테리아가 배양되면서 증식되는 곰팡이들은 마치 무한히 펼쳐지는 생명운동,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되기’의 운동 혹은 춤추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썩고 문드러지는 시체의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을 뒤덮은 미생물을 통해 인간과 미생물의 공생 관계 속에서 인간존재와 타자들 간의 위계 혹은 차이에 대해 철학적 물음을 유도해 낸다. 이를테면 이러한 질문들이다. 존재의 위계라는 것이 성립하는 것인가? 인간만이 과연 지구상의 유일한 주체일 수 있는가?

‘생철학(philosophy of life)’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르그송에 의하면, 최초의 유기체의 생명형태는 식물형태와 동물형태 사이를 넘나들면서 양자의 특징을 공유한다. 즉 최초에는 혼종되어 있던 것이 점차 식물은 고착성과 무의식성을 갖게 되고 체자리에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면, 동물은 자유롭게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경향이 처음부터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서로 구분되는 다른 경향을 극한까지 발전시키고 분산화한 결과라는 얘기이다. 따라서 식물적 고착성, 본능, 지성 이 세 가지는 동식물 모두 공통으로 지녔던 생명충동의 요소라는 주장이 성립한다. 미생물이든 인간이든 동물 혹은 식물이든 어떤 위계라는 것은 인간이 설정한 것일 뿐 서로 공존하며 함께 진화해 온 것이라는 과학에 근거한 철학적 사유가 박정선의 마이크로오가니즘 페이스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바니타스(vanitas)로부터 생명의 순환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박정선의 작업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이 담겨있다.

<미생물 얼굴> 작업으로 작가는 자신의 얼굴과 두 여배우의 아름다운 얼굴형상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들 얼굴들은 박테리아와 곰팡이 균으로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형태로 변형되기 시작한다. 초파리들이 그녀들 얼굴 위로 날아드는 모양은 해골이 있는 네덜란드풍의 정물화를 연상케 한다. 식탁 테이블 위의 반짝이는 그릇 안에 담긴 탐스런 과일과 꽃 사이로 무시무시한 해골이 날선 비수처럼 정물화에 꽂혀있다. 해골은 이 눈부신 날의 아름다움도, 청춘도, 화려함도 한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는 허무함과 인생무상 즉 ‘바니타스’의 얼굴이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젊은 날의 모습이고 한사람은 예술가(작가 자신), 다른 두 사람은 스크린에서 사랑받은 여성 배우들이다. 이들의 얼굴이 미생물로 인해 발광하는 가운데 본래의 고운 자태를 상실해가는 모습은 누구나 맞게 될 죽음, 바니타스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박정선의 작업에서 바니타스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것은 오히려 생명의 순환장치이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그곳에서 번식할 미생물들은 생명의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설치작품 <얼음속의 기억> 역시 죽음과 삶의 공존, 인류역사의 기억 속에 깃든 생명성을 노래한다. <얼음속의 기억>은 곰 인형, 속옷, 해·달·별 형상이 담긴 돌멩이 등의 사물들과 곰팡이가 피어있는 얼굴형상이 얼음 속에 가두어있는 작업이다. 작가가 어느 바닷가에서 주웠을 수도 있는 이 돌멩이들은 우연하지만 우주의 행성들을 닮았고 곰팡이 핀 얼굴과 곰 인형, 속옷 등은 모두 유년의 어떤 희미해진 기억들일 것이다.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 사라지는 것 모두 생명의 흔적이며,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다른 생명으로 혹은 기억 속에서 유지되는 존재들이다. 한편, 천정에 매달리는 스피커에서 ‘엄마야 누나야’라는 노래를 들려주는 <엄마야 누나야 3>에서 작가는 허공에 퍼지는 보이지 않는 소리들, 미생물들처럼 우리 주변에 늘 공존하지만 촉각되지 않는 음성을 통해, 이 우주에 떠도는 비가시적인 세계의 생명체들을 연상시킨다. 박정선 작가의 작업이 바니타스에 머물지 않고 약동적인 생명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생명은 도처에 편재하며, 공존하는 것이다.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져가며.

Microorganism faces asking for the reason of coexistence(microorganism Faces)

Yu Hyeonju Art critic

What is life? Isn't it that all living organisms share the same nature? Aren't life and death the two sides of life that alternate with each other?

Faces that have gone moldy, life's actions

Questions arise when you look at <Microorganism Faces>, which shows grotesque moldy faces with active microorganisms. The faces in acrylic boxes were created by mixing agar, used for making muk (Korean jelly), with nutrients and water and hardening the mixture. The faces - made after the artist herself, Marilyn Monroe and another actress - look tranquil just like corpses, while actually, vigorous activities of life are taking place there. In fact, as time goes by, the surface of the faces applied with fluorescent colon bacilli - produced by adding fluorescent protein to colon bacilli and culturing the mixture - and luminous bacteria gradually form chemical interactions with molds in the air. Because of such a biochemical environment, the faces slowly becomes unrecognizable as those of decaying bodies. They turn into faces represented by foreign organisms or microorganisms, with various fluorescent colors shining like traffic lights on them as if to announce their occupation by other organisms. Still, we witness here the emergence of new organisms in a given environment and their relationship and coexistence with one another, rather than the metastasis of life to other organisms. Of course, the question of "What is life?" is connoted in the process. In other words, there lie the artist's unending interest and critical mind concerning the boundary between life/existence and death as well as what are visible and invisible below the surfaces of the microorganism faces.

Breathing, the dance of symbiosis

In Park Jungsun's works, life appears as breathing exercises of moving things that prove being alive. Molds that come out on the face like age spots; fruit flies that gather for the breaths and secretions of microorganisms; and the faces rotting like those of dead bodies lead us to perceive the dynamic actions of life. The actions of the life urge, which separates plants and animals and drives the actions of life of individual organisms become visible through the microorganism faces. The biological phenomenon taking place on the faces seem to exemplify the message of the comment by leading biologist Lynn Margulis that all living things on the earth form a physiological body. According to her, life is part of a community that exchanges matter, energy, and information with other organisms, rather than being

a self-contained and autonomous entity. Therefore, our breathing is connected to other organisms that breathe in other parts of the earth, as the breathing in the terrestrial biosphere circulates with the density of carbon dioxide increasing at night and decreasing during the day, and the yearly breathing is related to the change of season. Park's microorganism faces are also related to other organisms through the breathing of microorganisms generated on them. What we should take note of here are the rhythms of life. Molds that multiply as bacteria while being cultured in agar do not stop the never-ending actions of life, the actions of 'becoming-life' in which life gives birth to life, or dancing. They draw philosophical questions on the hierarchy or differences between human existence and others, amidst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s and microorganisms, through the microorganisms grown all over the faces rather than the rotting and decomposed faces themselves. For example: Is a hierarchy of existences established? Can humans be the only subjects on earth?

According to Henri Bergson, who led the discussions on the philosophy of life, the first moved between the boundary of plants and animals and showed the characteristics. That is, they were hybrids at first; but gradually plants acquired sessility and unconsciousness as well as a system of accumulating energy from where they stand, whereas animals have evolved to spend energy freely and discontinuously. Then, it is not that two contrary tendencies were strictly divided from the first, but the distinct tendencies broke up and developed to the opposite extremes. Therefore, the argument that plant sessility, instinct, and intelligence are three factors of the life urge that was shared by both plants and animals is established. The hierarchy among microorganisms, humans, animals, and plants set by the humans is groundless, and the philosophical thought based on science, that they have coexisted and evolved together, is connoted in Park's microorganism faces.

From vanitas to the circulation of life, from death to life

Park's works hold questions on life and death.

For <Microorganism Faces>, the artist chose her own face and those of two beautiful actresses. However, their faces start to degenerate into unbeautiful shapes due to bacteria and molds. The sight of fruit flies flying over their faces calls to mind the Dutch-style still life paintings containing skulls. Between sparkling dishes filled with luscious fruits and flowers laid on the table, there is a terrifying skull stuck like a sharp knife. The skull is the face of vanitas - the futility and transience of life- that leads us to remember that beauty, youth and splendor all pass so quickly. The faces are all youthful, and one belongs to the artist while two others are those of actresses beloved on the screen. Their faces slowly losing their inherent beauty, while shining brightly due to the microorganisms, are naturally

associated with death that anyone has to face in time, or vanitas. However, Park's works go beyond the meaning of vanitas. They are rather instruments for the circulation of life. When we go in our tombs, microorganisms will breed there and remember life. Likewise, another installation work by Park titled <Frozen Memories> also deals with the coexistence of life and death as well as the life characteristic indwelling in the memories of human history. <Frozen Memories> is a work showing such objects as a teddy bear, red underwear, pebbles bearing the shapes of sun, moon, and stars, as well as a moldy face, all locked up in the ice. The pebbles that the artist may have picked up on a beach accidentally resemble some planets in the universe, while the moldy face, teddy bear and underwear seem to represent faint memories of childhood. All things that exist in the memories and vanish are traces of life, and although they seem to disappear in vain, they remain as other lives or in memories. Meanwhile, <Oh Mother and Sister 3>, in which the song of the same title is played from the speaker hanging from the ceiling, reminds us of the organisms of the invisible world wandering around the universe, through invisible sounds that spread in the air, the voices that always coexist with us like microorganisms but are not tangible. This is the reason why Park's works go beyond vanitas and also show dynamic life. Life is present everywhere and it coexists - continuing on through life and death.

출처: 아티언스 대전 17 결과보고서